

성북구 안암역 근처 가로쓰레기통 설치 제안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환경 동아리 IGREEN

대표자 : 이선호

팀원 : 엄혜영, 김민아, 이진우, 최민균, 박서진, 김소형

1.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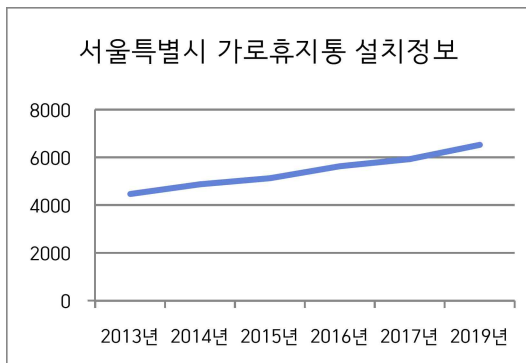
서울시 성북구 안암역 근처 거리에는 길거리 쓰레기가 많다. 가장 최근 서울특별시 가로 휴지통 설치 정보에 따르면 안암역 근처 길거리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가로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지만 넓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본 제안자들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1995년 7600개에 달했던 서울 시내 공공 쓰레기통은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크게 줄었다. 2007년엔 3700개로 급감했다가 최근엔 다소 늘어 2020년 기준 6535개가 설치되어 있다. 실제 거리의 시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 였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쓰레기통이 재설치된 곳이 있는 것이다.

2016년 당시 환경부 김영우 폐자원관리과장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일부 시민들이 가정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는 경우가 생겨,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기도 했다." 라고 했다. 그만큼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쓰레기통을 줄였던 방안 자체는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막는데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쓰레기통이 재설치 되는 시점에서 안암역 근처 거리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개)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계	4476	4884	5138	5640	5939	6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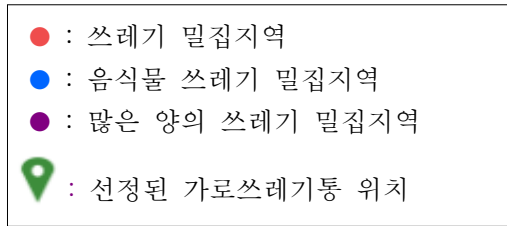


<일부 연도별 서울특별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개수-표와 그래프>

2. 제안내용

[1] 쓰레기지도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을 플로깅하며 쓰레기 밀집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암 지역 쓰레기 지도를 제작하였다.



- 상가나 건물에서 배출하여 일괄적으로 수거해가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버릴만한 곳이 없다.
- 쓰레기통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가는 공간의 종량제 봉투 위에 대충 올려둔 쓰레기들이 아주 많았다.
- 카페 주변에는 빨대와 비닐, 음식점 주변 특정 공간에 담배꽂초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있다.

[2] 가로 쓰레기통의 위치

제작한 쓰레기지도와 함께 실제 사람들의 이동, 경험, 주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가로 쓰레기통 위치 5곳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5개의 가로 쓰레기통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100 상희빌딩 앞 (개운사길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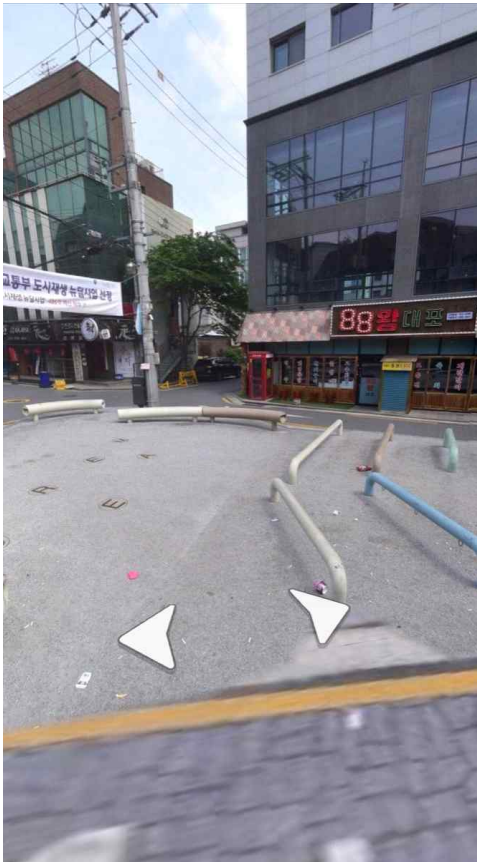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11 소담식당 앞 (고려대로24길 3-44)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2-59 맛닭꼬 앞 (고려대로24길 27)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73 88왕대포 앞 공터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35 (고려대로26길 63)



고려대학교(안암역) 주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위 지점에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한다.

3. 기대효과

- 가로쓰레기통의 설치로 길거리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줄여 전체적인 거리환경과 음식점, 카페 주변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프로젝트는 단순 가로쓰레기통 제안이 아니라 실제 쓰레기 밀집지역과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위치와 개수의 가로 쓰레기통 제안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